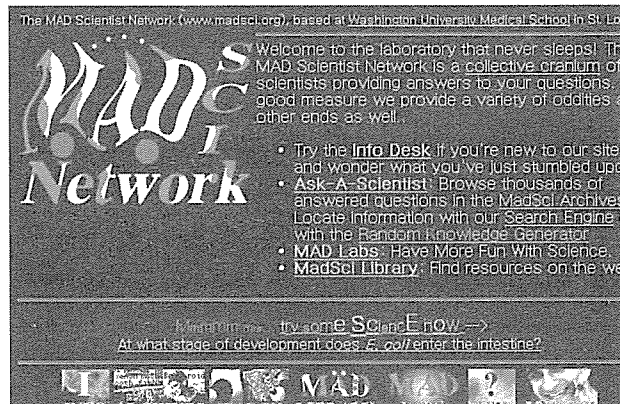


#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소개

## 1999년 최고의 과학사이트 선정 매드 사이언스 네트워크(www.madsci.org)

미국의 과학전문지 「포플러 사이언스」가 1999년 최고의 과학홈페이지 50선 가운데 1위로 워싱턴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드 사이언스 네트워크'를 선정했다. 그 중 무엇보다도 '과학자들에게 질문하기' 코너가 인기. 이 곳은 강단에 서는 유명 과학자들과 전국 대학 및 고교 과학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네티즌들의 질의 응답에 일일이 대답해주는 상담코너로 전국의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질의코너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질문서가 나타난다. 이 곳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된다. 질문자의 이해수준에 맞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 과학수준을 알아보는 몇가지 응답을 체크해두면 그에 맞춰 적절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편리하다. 특히 '신나는 실험실' 코너에서는 일부 주제에 대해 직접 실험과정을 보여주며 해답을 찾아준다. 기존 질의 응답을 살펴보고 싶다면 '매드실험실'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

곳에는 다른 네티즌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게재돼 있다. 다양한 질문들과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응답들이 정리돼 있어 쪽 살펴봐도 도움이 된다. 이 곳에 없는 대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항목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이 곳은 천문,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인류학, 의학 등 과학을 주제별로 분류해 놓고 해당하는 주요 홈페이지들을 정리해 놓았다. 일종의 링크 홈페이지인데 분야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따로 웹검색기를 가동할 필요가 없다.



## 특정주제 다루는 넷강의실 인기 넷사이언스(www.infoscience.co.kr)

국내 인터넷 과학잡지인 「넷사이언스」의 홈페이지로 1999년 1월 오픈했다.

2044년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다룬 천문과학지 「별과 우주」의 내용도 함께 실려있다. 잡초, 오로라처럼 특정 주제를 다루는 '넷강의실', UFO 등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정리한 '과학과 이상', Y2K처럼 현재 민감한 과학주제를 다루는 '포커스', 1998SG5 소행성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과학현상들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영상과학관', 일상생활 속의 과학현상들을 연계하는 '과학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1억5천만년 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놓은 '쥬라기공원' 메뉴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가운데 일부 기능은 아직 완성이 안돼

이용할 수 없지만 공룡의 이름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커다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공룡도감은 어린이 학습용으로 이용할만 하다.

또한 각종 과학현상들을 정리해 놓은 토막상식코너도 있다. 컴팩트디스크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흑백필름에서 검게 찍히는 영상들은 어떤 것들인지, 눈의 결정은 왜 6각형인지, 비파괴 검사란 무엇인지 등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면 된다. ⑤7

崔然軫(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